EU, 2006년 1인당 실질농업소득 2.6% 상승

김 정 섭*

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지난 해 농업소득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.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EU에서 농업인 1인당 실질농업소득은 2.6% 상승했다.

EU-25개국의 2006년 농업인 1인당 실질농업소득**은 2.6%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 2005년에 7.3%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부분 증가추세가 둔화된 것이다. 이 같은 실질농업소득 상승은 농업노동 투입량 감소(-2.2%)에 힘입은 바 크다.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인들도 실질농업소득 상승에 기여한 것 같다.

○ 농업생산액(실질가격으로 표현된 생산자 가격)의 안정적 유지

○ 세금을 공제한 보조금의 실질 가치 상승(+0.8%)

2006년 EU-25개국의 농업인 1인당 실질농업소득은 2005년 EU-18개국의 그것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. 네덜란드(+17.6%), 프랑스(+8.6%), 오스트리아(+6.6%), 리투아니아(+6.5%), 체코(+6.4%) 등의 국가에서 1인당 실질농업소득이 크게 증가했다. 큰 폭으로 감소한 국가는 아일랜드(-10.2%), 핀란드(-6.2%), 말타(-5.5%)이다.

---

*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skkjs@empal.com 02-3299-4252

** 농업소득은 당해에 농업활동 그리고 농업활동과 분리할 수 없는 2차 활동으로부터 산출된 소득으로 구성된다. 따라서 여기에는 비농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, 급여, 사회적 편익, 부동산 수입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, 농업소득은 농가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.

표 1 EU 회원국별 농업인 1인당 실질농업소득 변화, 2006년

국가	2005년 대비 증감율(%)	2006년 실질농업소득 지표 (2000년=100)	국가	2005년 대비 증감율(%)	2006년 실질농업소득 지표 (2000년=100)
EU-25	+2.6	104.5	사이프러스	+2.0	96.8
네덜란드	+17.6	99.0	그리스	+1.7	83.1
프랑스	+8.6	94.9	스웨덴	+1.2	100.3
오스트리아	+6.6	114.2	포르투갈	+1.2	130.4
리투아니아	+6.5	203.8	스페인	+0.3	99.6
체코	+6.4	152.5	영국	+0.2	123.8
덴마크	+5.8	100.5	슬로바키아	-0.8	119.9
독일	+5.1	119.7	슬로베니아	-2.7	140.0
라트비아	+4.9	222.6	이탈리아	-4.2	89.9
헝가리	+4.5	160.8	에스토니아	-4.4	226.7
폴란드	+4.0	170.0	말타	-5.5	103.3
룩셈부르크	+4.0	89.7	핀란드	-6.2	101.7
벨기에	+2.6	90.9	아일랜드	-10.2	93.4

2006년 한 해 동안 농업생산액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. 작물생산량 감소 폭이 크지 않았고(-0.1%), 축산물 생산량은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다(+0.2%). 작물 수확량 감소(-2.7%)가 상당했지만, 생산자 가격이 2.6% 까지 상승함으로써 수확량 감소로 인한 효과를 완충할 수 있었다.

가장 급격한 수확량 감소를 보인 품목은 사탕무(-17.2%)와 올리브유(-11.8%)였다. 생산자 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한 품목은 감자(+36.4%), 올리브유(+12.9%), 유지류(+11.5%), 곡물류(+11.1%) 등이었다. 사탕무의 경우 수확량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, 생산자 가격도 16.3%나 하락했다. 2006년에 축산물 생산액이 소폭 상승한 것은 생산량이 감소했음(-0.3%)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가격이 상승(+0.5%)한 때문이다.

농업부문의 투입재 비용은 2006년 한 해 동안 1.5% 감소했다. 가장 큰 감소

폭을 기록한 투입재 종류는 비료 및 토양개량제(-3.8%)였다. 농업 투입재의 실질가격은 1.7% 정도 상승했다. 이는 주로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(+8.4%)한 때문이다

참고자료

http://europa.eu/rapid/pressRelsaseAction.do?reference=STAT/06/169&format=HTML&aged=0&language=EN&guiLanguage=en (EU 집행위원회) 발췌정리